

■ 국방저널 '성곽순례' - 한양도성 下 / 혜화문에서 소의문 터까지

국방저널은 지난달에 이어 2월호에 기획기사 '성곽순례' 한양도성 하편을 실었다.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기사 전문은 국방저널 e북에서 만날 수 있다.

가파른 언덕길 한시간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양도성의 인왕산 곡성에 오르기 전 하얗게 눈 덮인 성곽 아래로 남산과 서울의 빌딩숲이 눈에 들어온다.

이번에 살펴볼 한양도성은 혜화문을 지나 소의문 터로 이어지는 북쪽 구간이다. 특히 한양도성에서 숙정문이 있는 북악산 지역은 나머지 문과 달리 산악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1·21사태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38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2006년부터 일반에 개방됐지만, 아직도 탐방시간을 정해놓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산 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청서를 안내소에 제출해야만 한다. 사진촬영도 일부 구간은 제한된다. 하지만 탐방 신청만 제대로 한다면 순성(巡城)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쪽 지역과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북쪽 구간의 한양도성을 만나보자.

일제 강점기때 사라진 후 1994년 복원된 '혜화문'

시작은 한양도성박물관이다. 북쪽으로 순성길 이정표를 따라 1시간10분 정도 걷다 보면 한양도성 4소문 중 하나인 혜화문(惠化門)을 만날 수 있다. 처음에는 홍화문(弘化門)이었지만, 1483년(성종 14) 새로 장건한 장경궁 동문도 홍화라고 지어져 혼동을 피하려고 혜화로 고쳤다고 한다.

지금도 미아리 고개를 지나 의정부로 이어지는 길이 혜화문 바로 옆을 지나고 있어 당시에도 한양도성의 중요한 출입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화문은 일제 강점기에 헐려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1994년 복원됐다. 하지만 복원된 곳이 본래 위치는 아니고 10여m 차이 나는 곳에 세워져 외딴 성문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성문 천장에는 봉황 두 마리가 새겨져 있고 아치형 출입구에 누각을 올린 형태여서 전형적인 조선시대 성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산악지역에 만들어진 북쪽의 대문 '숙정문'

혜화문에서 언덕길을 따라 한 시간가량 오르다 보면 북문인 숙정문(肅靖門)에 다다른다. 주변에 숙정문 안내소와 말바위 안내소가 있다. 오르막도 많으므로 여유롭게 순성하고 싶다면 와룡공원에서 혜화문을 지나 동대문으

○ 한양도성박물관

○ 혜화문
와룡공원



○ 숙정문



○ 창의문

○ 인왕산 곡성

○ 소의문·돈의문

로 이어지는 구간과 와룡공원에서 숙정문을 지나 창의문(彰義門)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추천한다.

북쪽의 대문인 숙정문은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산악지역에 만들어져 성문 역할을 하기 보다 4대문으로서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원래 이름은 숙정문(肅靖門)이었지만 나중에 지금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4대문 중 유일하게 터만 남은 '돈의문'

숙정문에서 1시간40분 정도 순성길을 따라 걷다 보면 창의문이 눈에 들어온다. 4소문 중 하나인 창의문은 돌로 쌓은 흥에 위에 정면 4칸, 측면 2칸 구조의 문루가 있다.

북대문인 숙정문이 항상 닫혀 있어 북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이 문을 거쳤다고 한다. 1958년 보수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이곳에도 창의문 안내소가 있어 숙정문까지 가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인왕산 곡성을 만날 수 있는데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한양도성 주변의 멋진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꼭 추천하는 장소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 유일하게 터만 남아있는 대문이 있다. 바로 서쪽 대문인 돈의문(敦義門)이다. 최초 돈의문은 1396년(태조 5) 한양도성의 8개 성문과 함께 건설됐지만, 일제 강점기인 1915년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철거된 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 정동사거리에 돈의문 터라는 표지석만 남기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송례문과 돈의문 사이에 위치해 서소문(西小門)이라고 불렸던 한양도성 4소문 중 하나인 소의문(昭義門)은 돈의문 터보다 더욱 초라하다. 비교적 커다란 표지로 눈길을 끄는 돈의문 터와 비교하면 소의문은 터를 나타내는 표지석조차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일보사 옥 건너편 주차장 구석에 있는 소의문 터 표지석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